

마침표.



정성근 마티아
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안과 교수

몇 년 전 매주 토요일 심야에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“느낌표, 눈을 떠요!”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(당시, 강남성모병원)에 근무하는 안과 교수가 출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인식 부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각막 이식 수술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각막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술과정, 회복과정까지 긴박한 실제상황을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므로 특히, 수술결과가 방영될 때는 환자, 보호자, 시청자 모두가 한 밤 중에 울음바다를 이루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. 하지만 그때 각막 이식 수술에 사용되었던 각막은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국내에서 기증된 각막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.

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시각장애인 20만 명 중 2만 명은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증 각막의 부채로 한 해에 1%인 200명 정도만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진한 감동이 장기 기증에 관해서는 불모지인 우리 사회 곳곳의 장기기증 캠페인에 불을 당겨 장기를 기증하는 문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이 크게 확산되었으면 합니다.

예전에 가톨릭계에서도 일어난 운동의 하나가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일어난 “한 마음 한 몸 운동”입니다. “한 마음 한 몸 운동”은 생명운동, 나눔운동, 하나됨을 지향하는 운동이며, 나눔으로써 형제적 일치룰 이루도록 이바지하며, 하느님 아버지 뜻에 따라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생활 쇄신 실천 운동입니다.

그 당시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고, 이어서 사회 저명 인사, 신자, 비신자들까지도 많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한 동안은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르렀으나 이후 줄거나 정체 수준에 머물던 중 생전에 각막 기증을 하셨던 김수환 추기경님의 서거로 다시 현안운동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1년이 지난 현재 예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

가톨릭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다면, 요즈음 누구나 애기하는 좋은 음식을 잘 먹고,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, 건강하고 여유롭게 사는 웰빙(well-being)보다는 다음 세상을 믿는 우리에게는 웰다잉(well-dying)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셔서 우리 생명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에 앞장섭시다.

더불어 가톨릭계 방송,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, 더욱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천주교 한 마음 한 몸 운동 본부의 재활성화, 성직자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장기 기증을 비신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등으로 인하여 신자들의 장기기증이 줄을 이어 더 이상 기증 장기가 모자라 시각장애인이 광명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흑에서 살아가는 일에 “마침표”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